

89.4.25

청소년雜誌 갈수록 저질

YMCA·주부교실 조사 선정적記事 향락적廣告 가득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각종 월간지가 성과 연예인을 주제로한 선정적인 기사와 사진, 이성교제와 부수를 떠는 과소비를 유도하는 광고 등으로 가득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월간지들은 YMCA 청소년선교회 산하에 있는 1천원 대에 판매되는 잡지였는데, 중의 잡지를 분석한 결과, 주부교실의 「요리」 「주니오」 등 학생대상 잡지 4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월간지들은 YMCA 청소년선교회 산하에 있는 1천원 대에 판매되는 잡지였는데, 중의 잡지를 분석한 결과, 주부교실의 「요리」 「주니오」 등 학생대상 잡지 4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월간지들은 YMCA 청소년선교회 산하에 있는 1천원 대에 판매되는 잡지였는데, 중의 잡지를 분석한 결과, 주부교실의 「요리」 「주니오」 등 학생대상 잡지 4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월간지들은 YMCA 청소년선교회 산하에 있는 1천원 대에 판매되는 잡지였는데, 중의 잡지를 분석한 결과, 주부교실의 「요리」 「주니오」 등 학생대상 잡지 4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월간지들은 YMCA 청소년선교회 산하에 있는 1천원 대에 판매되는 잡지였는데, 중의 잡지를 분석한 결과, 주부교실의 「요리」 「주니오」 등 학생대상 잡지 4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들 월간지들은 YMCA 청소년선교회 산하에 있는 1천원 대에 판매되는 잡지였는데, 중의 잡지를 분석한 결과, 주부교실의 「요리」 「주니오」 등 학생대상 잡지 4종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웃을 흘릴 것이야 잘다나」 「꽃새끼같은 무슨새?」 등 선정적인 호기심만 자극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 이성교제에 대한 기사에서 「요즘 아다(수줍은) 여학생을 지칭)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청소년을 지칭)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성친구를 사귀지 말라! 안 되는 경우만든지 주의한다. 호 텔 카피를 이용해 「이런 단점만을 레안 열말라! 아무것도 모를채 평생 한탄자만 안다면 그 첫처를 불행한 일 밖에 없다!」 등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요즘 아다(수줍은) 여학생을 지칭)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성친구를 사귀지 말라! 안 되는 경우만든지 주의한다. 호 텔 카피를 이용해 「이런 단점만을 레안 열말라! 아무것도 모를채 평생 한탄자만 안다면 그 첫처를 불행한 일 밖에 없다!」 등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이성친구를 사귀지 말라! 안 되는 경우만든지 주의한다. 호 텔 카피를 이용해 「이런 단점만을 레안 열말라! 아무것도 모를채 평생 한탄자만 안다면 그 첫처를 불행한 일 밖에 없다!」 등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이성친구를 사귀지 말라! 안 되는 경우만든지 주의한다. 호 텔 카피를 이용해 「이런 단점만을 레안 열말라! 아무것도 모를채 평생 한탄자만 안다면 그 첫처를 불행한 일 밖에 없다!」 등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순해배상미 지극하라” 소비자보호원 절로 도 못” 한국소비자보호원 한 매를 전표의 서면이